

“통합병원서 시신 소각...너무 많아 경남 김해 바다에 버려”

미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보안부대 출신 허장환씨 국회 증언
“전일빌딩에 시민군 저격병 있어 헬기로 저격 작전 수행”
“보안사가 민간인 가장 사복군인 투입해 시민 극렬행위 유도”

80년 5월 주한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505 보안부대 특명부장을 지낸 허장환씨가 13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군부가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소각 처리)했다고 증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용장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매장한 시신을 재발굴해서 일부는 광주통합병원에서 소각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며 “최근 보도를 보면 시신을 김해공항으로 수송했다고 하는데 왜 김해로 갔겠는가, 틀림없이 거기서 수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장환씨도 같은 증언을 했다. 허씨는 “당시 공수특전단에서 (보안사에) 가매장 위치, 좌표를 표시해 면밀히 보고했는데, 이는 ‘북한의 간첩이 있는지 엄중히 가려 내라’는 지시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 허씨는 “나는 지문 감식관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며 “발굴한 시신을 다시 묻을 수 없으니 통합병원에서 화장 처리했다. 통합병원 원장은 전두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인근 민가에서 골목 연기 때문에 장독 뚜껑을 못 열었다고 했다. (희생자) 화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태우다 태우다 모자라서 용량이 넘치니 김해공항으로 빼가지고 해양투기를 해버렸다(고 추정된다)”며 “그 때 소각한 유골을 광주시 청소부들을 동원해 모처에 매장시키도록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한 급부도 저희(보안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몇 구의 시신을 소각처리 했는지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 5월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 직후 광주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사살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점심시간 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 K57 비행장에 왔다”며 “오자마자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 3명과 모두 4명에서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파기되지 않았으면 비행 계획서 등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전두환이 이날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용장 전 미 정보부대 군사정보관(맨 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시민을 가장한 계엄군인 편대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김씨는 “사복 차림의 민간인을 가장한 군인들이 존재했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은 19일 또는 20일 성남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고, 약 30~40명 가량이었으며 K57 비행장 격납고에서 2~3일 주둔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들을 광주로 보낸 사람은 바로 전두환의 보안사령부였고, 당시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과 서의남 505부대 대공과장이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 K57에 출입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상부(미국)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그들은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들어갔으며 방화, 총격, 장갑차 탈취 등은 편이대가 선봉에서 시민을 유도하거나 직접 발인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유언비어 역시 이들이 시민으로 위장해 발인 공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공작원들이 시민으로 위장, 군중 속에 들어가 ‘경상도 군인이 광주시민 다 죽이려 한다’, ‘북한 게릴라가 침투했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리가 낸 귀한 세금이 전부 군사정부에 사용된다’고 광주세무서에 불을 지르고, ‘MBC는 허위방송이 너무 많다’며 (방송국에) 방화를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허씨는 “27일 ‘전일빌딩에 시민군 저격병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그래서 헬기로 저격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며 “헬기가 호버링 스탠스(공중에 정지한 상태)에서 사격했다. 내가 당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해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걸 헬기 비행계획서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공군과 보안사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도 “5월 21일 낮에 UH1H 헬기가 M60 머신-거닝(gunning)했고 위치는 도청 주변이었으며 27일에는 광주천 상류에서 위협사격을

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당시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 전화를 걸어와 11공수와 전교사의 쌍방교전사건과 관련 “여순반란사건 아느냐. 정확히 보고해라”고 지시, 단순 오인 사격이라고 보고하자 이 처장이 “네가 광주를 살렸다. 00비행단에 출격 취소시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허씨는 “당시에는 ‘광주 폭격’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후에 조종사 양심선언도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알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두환 불참 속 5·18 명예훼손 재판

광주시민 5명 ‘헬기사격’ 목격 참상 진술

13일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형사 사건 피고인 신봉인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목격자가 증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직접 목격한 광주의 참상을 진술했다.

1980년 5월 당시 해군 군의관(대위)이었던 김용기씨는 “피터는 목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양림동으로 이동하던 중 헬기에 시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승려였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광영씨는 “시민들과 함께 현수막을 만든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헬기사격 공격을 받았다”며 “지그재그 운전으로 사격을 피하려 했으나, 헬기는 다시 되돌아와 우리를 공격했다. 화염을 직접 목격했고 기관총도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부였던 정선덕씨는 “남편이 전일빌딩에서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기독병원으로 가던 중 헬기에서 3회 정도 총격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죽은 남편을 잊기 위해 침묵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헬기사격에 대한 왜곡이 넘쳐나 증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차량 밑에 숨어도 허사

교통사고 낸 40대 여성 차 들어올려 검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관을 피해 다른 차량 밑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검거하기 위해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차량을 들어올리는 소동까지 벌여야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김모(여·44)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인근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려다 주변에 있던 차량 3대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인근 다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숨어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차 밑에서 나오도록 설득했지만, 김씨는 끝내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차량을 들어 올린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측정을 거부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나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술먹고 흥기 난동 50대 나란히 입건

김씨는 청소년과 술집 업주 등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3일 중학생들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만취한 김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에 광주 서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과 말다툼을 하다 흥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조

직폭력배다”고 주장하며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도망가는 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11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는 이모(57)씨가 업주를 흥기로 위협하다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이씨는 술집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흥기로 협박한 혐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낙지 훔쳐먹고 시치미 떴던 60대 입 주변 먹물에 덜미



○전통시장 내 화물차량 적재함에 둔 낙지를 훔쳐먹고 시치미를 떴던 60대가 낙지 먹물 때문에 덜미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모(60)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 서구 전통시장 내 도로에 서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2만원 상당의 낙지 3마

리를 훔쳐 먹었다는 것.

○낙지 주인 김모(36)씨는 장씨가 차량 적재함에 손을 넣어 낙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인근 술집 테이블에 앉아있던 불찰한 장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땀다가 입 주변에 묻은 먹물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김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땀다가 입 주변에 묻은 먹물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땀다가 입 주변에 묻은 먹물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업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